

“심침호모(深簷胡帽)” 考:

몽골제국 한 시대를 풍미한 女眞식 모자의 변천사

장가 張佳 (復旦大學文史研究院)

발표요지

명나라 홍무 원년에 발포한 '호복(胡服)' 금지령에서 원나라 시기에 유행했던 '심침호모(深簷胡帽)'를 언급했다. 몽골과 원 시기의 자료를 종합해서 이런 모자가 시대적인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는 모자, 즉 '만립'(幔笠) (혹은 '方笠', “四角笠子” 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만립은 원래 중국 금대 여진의 복식이었는데 후에 몽골에게 받아들여 몽골 정벌에 따라 중국, 고려, 중앙아시아 심지어 페르시아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 군왕, 신료, 문인, 서민의 각각 사회 계층에서도 널리 이용하고 있었다. 원·명 정혁(鼎革)이후 만립은 한족 사대부들에게 원나라 중국 '오랑캐화(胡化)'의 상징으로 신속히 역사에서 사라졌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반도에서도 만립은 비슷한 역사가 재현했다.

만립은 뚜렷한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몽원복식 연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명나라의 모자와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립에 대한 연구는 많은 중요한 이미지 자료가 있는 시대를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만립이 동아시아에 있는 유행과 소망은 간접적으로 '몽골열풍'의 흥함과 쇠함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가 지식인 '호한화이(胡漢華夷)' 의식 흥망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

약력

1981년 출생, 산둥성(山東省) 가오미현(高密市) 출신이며 북경대학교 중국어 고전 문헌학학사(2004), 청화대학교 역사학과 문헌학 석사(2007), 복단대학교 역사학과 전문사 박사를 받았다. 전공은 원·명나라 사회문화 역사이고 주요 저작은 《新天下之化：明初禮俗改革研究》 (복단대학교 출판사, 2014년), 논문 《元濟寧路景教世家考論》、《再叙彝倫：洪武時期的婚喪禮俗改革》、《別華夷與正名分：明初的日常雜禮規範》、《衣冠與認同：麗末鮮初朝鮮半島襲用“大明衣冠”歷程初探》、《明初的漢族元遺民》 등 십여 편이 있다.